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자 주님이 주신 것도 가치가 없다.
2.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비싼 돌도 가치가 없다.
3. 사람도 사연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4. 가령, 값비싼 옥 작품이 있다 하자. 만든 모양으로는 그 가치를 다 보여 줄 수가 없다. 옥 자체가 비싸기에 옥이 얼마나 좋은 옥인지를 알아야 한다.
5. 구원자도 생긴 것으로는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없고, 그 가치를 보여 줄 수도 없다. 그 마음, 정신, 행실, 말씀, 구원의 차원,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숨겨진 가치를 알게 된다. 구시대 종교인들은 외모만 보고 구원주의 가치를 따지고 대했다.
6. 섭리사에서 귀하게 쓰이는 자들의 가치도 외모만으로는 그 가치를 다 보여 줄 수가 없다. 그 마음, 정신, 행실, 실력과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받은 사명과 충성심으로 가치를 알 수 있다.
7. 초림 때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의 육신을 쓰고 행하시는데, 유대 종교인들은 나사렛 예수의 외모만 보고 그 가치를 따졌다. 고로 실족했다.
8. 가령 옥으로 말 형상의 작품을 만들었다 하자. 그 작품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별로다. 멋지게 못 만들었다.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겠다.” 했다. 이에 작가가 말하기를 “그렇게 보여도 옥 값만 1억이 넘습니다. 아주 옥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모양이야 하나의 작품 형상이고, 어떤 옥으로 작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보석의 가치를 몰랐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했다. / 이와 같이 모양

만 봐서는 가치를 알 수 없다. ‘사람’도 모양의 가치, 마음 품성의 가치,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가 얼마나 귀히 쓰느냐에 따른 사명의 가치 등 ‘본질’을 알아야 그 가치를 알게 된다.

9. ‘반지’도 모양만 보고서 값을 따지지 않는다. 모양 값, 무게 값, 품질 값을 다 따진다. 금이 14k인지, 18k인지, 순금인지, 반지에 박은 보석이 사파이어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또 보석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를 본다. 또한 반지를 세공한 값을 본다. 두루두루 다 봐야 반지의 제 가치를 알 수 있다. / ‘사람’도 모양만 보지 말고 마음, 성품, 행실, 삶을 봐야 하고, 하나님과 성자가 얼마나 귀히 쓰시는지 그 사명을 보고, 어느 차원으로 살면서 그 영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다 봐야 제 가치를 알 수 있다.

10. 월명동의 바위들도 마찬가지다. 모양 값, 무게 값, 사연 값, 그리고 누구를 상징한 바위인지 모두 합쳐서 가치를 따진다.

11. ‘다이아몬드’는 깎고 다듬어 만들기 전, 알밤만 하게 두루뭉술하게 생겼어도 수십억이다. 모양이 없어도 가치가 엄청나다. / ‘사람’도 외모가 별로여도 그 마음·정신·행실이 전능하신 성자와 일체 되어 하늘 앞에 충신으로 인정받은 자는 그 값이 알밤만 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가졌다. 사람은 몸무게보다 인격의 무게와 지혜와 지식의 무게를 따지고, 그 육과 영이 누구를 닮았느냐를 따진다.

12. 키를 키우고, 얼굴을 작게 깎고, 허벅지와 장딴지를 가늘게 만들고, 허리를 잘록하게 깎을 것 없다. 그냥 뒤도 가치가 있다. 하늘 앞에 충성하고, 생명을 전도하고 관리하며, 강의를 달인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청중에게 감동을 주며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있으면, 그는 대 가치를 가진 자다.

13. 좋은 옥은 깎아서 어떤 모양의 작품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뒤도 제값이 나간다. 굳이 옥으로 말 형상을 만들고, 코끼리 형상을 안 만들어도 옥 자체만

으로 제값이 나간다.

14. 섭리사에서 사람을 볼 때는 그 마음과 행실의 가치를 보고, 성자에게 쓰이는 가치를 보고, 영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보고 대하여라. 외모만 보고 대하는 자는 마치 옥 값을 모르고 그 모양만 보고 대하는 미련한 자와 같다.

15. ‘수석’은 얼마나 강한 돌에, 어떤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사람’도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에게 어떤 특성과 재능이 있는지,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지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16. 지난날 섭리인들을 보아라. 겉모습을 보고 쳐다보며 “야~ 멋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형상이다. 마리아 형상이다.” 하기도 하고, 혹은 “주님의 형상이다.” 하기도 했다. 모양과 형상은 그러했건만 그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약하고 온전치 못하여, 환난의 겨울이 지나니 마치 물을 먹어 푸석푸석해져 깨지는 석회석과 같이 깨져서 섭리사를 나갔다.

17. 월명동 야심작도 네 번이나 무너졌는데, 이때 약한 돌들은 모두 무너져 깨졌다. 다섯 번째에는 강한 돌들로만 세웠다. 고로 지금은 보석에 가까운 강한 돌들만 남아 있다.

18. <성자바위>는 쇠덩어리 같은 강한 질의 바위다. 모두 성자바위같이 마음과 행실이 강하고 무거운 자들이 되고, 성자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라고 기도한다.

19. 돌이 석회석이면 강하게 못 만든다. 사람도 석회석 같은 마음과 행실로는 멋진 인생으로 못 만든다. 기도하고 행하면 석회석 같은 마음도 얼마든지 강하게 만들어진다.

20. 사람의 가치는 마음·정신·생각·행실 값이고, 그 영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고로 어느 급에서 살고 있는 영인지, 성자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연관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21. ‘사망으로 가는 영’과 ‘사망권 속에서 사는 욕’은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짐승과 같이 무가치한 인생이다.